

대학생의 자존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승인 욕구의 중재효과*

김민정[†]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자존감과 우울, 불안 및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gers의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련성에 대한 개념화를 토대로 승인(承認) 욕구가 자존감과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생 147명(여자 9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해서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은 개인은 승인 욕구가 클수록 삶에 대해 덜 만족하고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자존감과 외부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불안에 대해서는 승인 욕구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우울과 불안의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자존감, 승인 욕구,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 본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07년 5월 한국상담심리학회 통합심포지엄 및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민정,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유억겸기념관 202호

Tel : 02-2123-4722, E-mail : eva0128@naver.com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학생 시기의 심리적인 안정은 목표설정과 성취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태운, 2006; Schunk., 1984). 특히 대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더불어 그들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권성호 외, 1997). 자존감이 낮게 되면 학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기 쉽고 내적 욕구가 부족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Napper, 2006).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낮은 자존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었다: 우울(Beck, Brown, Steer, Kuyken, & Grisham, 2001), 불안(Leary, 1983), 낮은 삶의 만족도(DeNeve & Cooper, 1998). 그러나 자존감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가 항상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Hudson, Elek과 Campbell-Grossman(2000)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과 우울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이처럼 예언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중재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Frazier, Tix, & Barron, 2004). 특히 낮은 자존감은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이며 이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데, 자존감이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조절하는 변인을 밝힐 수 있다면 상담적 개입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 중의 하나가 바로 승인 욕구(need for approval, Crowne, 1964)이다. 이 개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욕구를 말하는데,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 시기는 특히 자신의 정서감을 수립하는 시기이므로(원호택, 박현순, 2000)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인정이나 긍정적인 반응이 받느냐의 여부가 이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존감, 승인 욕구,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예; 우울,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적 토대로, 첫째, Ellis와 Lange(1994)는 자존감이 낮은 개인일수록 타인의 긍정적 관심에 더 민감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내적인 욕구에 귀 기울이기보다 타인의 거절을 두려워하기 쉬우며, 이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둘째, 일반인뿐 아니라 상담에 오는 내담자에 대한 개념화에서, Rogers(1951)와 Raskin(1952, 2004)은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는데 이들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승인에 과도하게 민감한 것이며 이러한 특성이 내담자의 심리적인 고통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근거를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두는 특성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고 이것은 또한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되었다(Bucur & Lee, 2006; Lee, Lee, & Park, 2008). 또한 Crocker와 동료들(Crocker, Sommers, & Luhtanen, 2002)은 미국 대학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자존감수준을 결정하는데 학업적 측면을 중요시할수록 합격(승인)과 불합격(거절)의 영향이 개인의 정서경험에 큰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개념화와 선행연구들이 낮은 자존감, 승인 욕구,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성을 시사하였지만 이 관계에서 승인 욕구

가 실제로 중재 혹은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존감과 승인 욕구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여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존감과 심리적 부적응(우울,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승인 욕구가 유의한 중재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자존감과 우울, 불안 및 삶의 만족도

심리학에서 자존감(self-esteem)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Blasovich & Tomaka, 1991). 자존감에 대해 Rosenberg(1965)는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언급하였다. 유사한 용어인 자기개념(self-concept)이 자신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데 반해,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Blasovich & Tomaka, 1991), 즉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는지를 나타낸다. 상관 연구들을 살펴보면, 낮은 자존감은 개인의 낮은 성취(Patten, 1983), 외로움(Peplau & Perlman, 1982), 소외감(Johnson, 1973),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Salsali & Silverstone, 2003), 직무태만 및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공격성(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등과 관련된다. 요컨대, 낮은 자존감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되는 변인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낮은 자존감은 대표적 부적응 지표인 우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Beck, Brown, Steer, Kuyken과 Grisham(2001)의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우울이 -.56의 높은 상관을 보

였으며, Shaver와 Brennan(1990)는 우울에 대한 연구 개관에서 우울과 낮은 자존감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간의 높은 상관은 청소년 집단에서도 나타났으며(Battle, 1978), 또한 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Fung, Lui, & Chau, 2006). 그러나 자존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들 속에서 Hudson 등(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존감과 우울사이 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우울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적응 지표로는 불안을 들 수 있는데, 낮은 자존감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Leary(1983)는 불안과 성격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개괄을 통해 낮은 자존감이 불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Byrne(2000)도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 모두에서 자존감과 불안이 부적 상관(남자, $r = -.69$; 여자, $r = -.67$)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자존감은 유의미하게 낮지만 불안에서는 비교집단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Grayston, De Luca & Boyes, 1992) 등을 통해서 자존감과 불안이 반드시 함께 변화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자존감이 낮은 내담자라고 하더라도 허용적인 상담 장면에서는 불안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더라도 자존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는 중재 변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과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인 부적응을 대표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인간의 적응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Diener(1984)는 삶의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삶의 만족

도를 설명하는 요인들로 경제력이나 성별, 결혼상태, 종교 등을 언급하였다. 그 중 자존감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인 내적 특성이며(Campbell, 1981), 또한 안녕감과도 높은 상관을 보인다(DeNeve & Cooper, 1998). 즉,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 만족하고 주관적으로 더욱 행복하게 느낀다(Campbell, 1976)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 자존감이 높더라도 자존감의 불안정성이 높으면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난다는 보고들(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을 볼 때 높은 자존감이 모두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자존감과 승인 욕구와 심리적 부적응

자존감이 낮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에 예민하며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타인으로부터 거부될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eary & Downs, 1995; Rudich, Sedikides, & Gregg, 2007). Leary와 Downs(1995)는 자존감 동기(self-esteem motive)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낮은 자존감은 자신이 사회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식할 때 나타나는 것이며, 이렇게 자존감에 위협을 받았을 때 개인은 타인의 승인을 추구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Rudich, Sedikides와 Gregg(2007)의 실험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참여자들이 낮은 참여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평가자와 상호 작용하기를 원하는 정도가 높아, 낮은 자존감을 가진 개인이 타인의 거부에 민감한 경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자존감과 타인의 승인을 얻으려는 욕구 사이의 관련성은 Rogers가 제안한 조건

적인 관심(conditional regard)의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Rogers(1951)는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보일 경우에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개인이 주위 환경, 즉 타인이 기대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때만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에게 사랑 받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conditioned self-worth)이 발달하고, 이는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다(Deci & Ryan, 1995). 요컨대, 개인이 느끼는 자기 가치감은 타인이 자신에게 갖는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영향을 받고(Greenberg & Mitchell, 1983),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전술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욕구를 ‘승인 욕구’라고 한다(Crowne, 1979). 승인 욕구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욕구인데, 승인 욕구가 높은 개인은 사회적인 단서에 더욱 민감하고 의존적이며 상황의 요구에 고분고분한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승인 욕구는 개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며 맞춰주는 태도(Crowne, 1979)라는 점에서 Rogers가 말한 조건적인 관심과 관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이 낮은 개인은 타인의 긍정적 관심에 더 민감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에 귀 기울이기보다 타인의 거절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욕구에 맞추기 쉬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될 수 있다

(Ellis & Lange, 1994).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승인 욕구,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호작용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존감이 낮고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자존감이 낮고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불안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자존감이 낮고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더 낮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에 소재한 2개의 대학교에서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47명(여자 97명, 66%)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17($SD = 2.17$)세였다. 본 연구 표본이 수집된 시기인 2007년에 4년제 대학 전체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총 학생 수는 8,926명이고 이 중 여학생은 5,852명으로 약 69%를 차지하였다(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07).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비(여학생 66%)는 교육학과 학생 전집 중 여학생이 포함된 비율(69%)에 근접하고 따라서 전집을 비교적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젠버그 자존감 검사(Rosenberg Self-Esteem Scale: RSS; Rosenberg, 1965)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반적 자기 가치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도구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5문항과 부정적 태도 5문항, 총 10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응답자는 likert식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확실히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존감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본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77 ~ .88로 보고되었으며(Dobson, Goudy, & Powers, 1979; Fleming & Courtney, 1984),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승인욕구

참여자들의 승인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wne과 Marlowe(1960)의 사회적 미화경향성 척도(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SD)를 이용승(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MCSD는 사회적 미화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정확히는 거부를 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고 있으며(Crowne, 1979), 후속 연구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Lopez, 2001). 본 연구에서는 33문항의 MCSD를 사용하였으며, 문항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들(예; 실수를 인정하기) 혹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보편적인 행동(예; 뒤에서 남의 이야기하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는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높은 점

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73 ~ .88이었으며(Paulhus, 1991, 참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

우울과 불안은 간이증상검사(Brief Symptom Inventory: BSI; Derogatis & Melisaratos, 1983)에서 우울/불안과 관련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BSI는 간이정신진단검사지(Symptom Checklist 90 - Revision: SCL 90-R)의 단축형으로,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SCL 90-R과 높은 상관을 보여 타당성이 검증되었다(정신증 $r = .92$, 적대감 $r = .99$ Derogatis, 1977). 9개의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 중에서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은 각각 6문항씩으로 총 12문항이며, 응답자는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정도에 따라 likert식 5점 척도(1 =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5 = 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응답한다. 국내에서는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마쳤으며, 내적 일치도는 우울 = .79, 불안 = .6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우울 = .85, 불안 = .83이었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안신능(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SWLS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7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여(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일치도 계수는 .87이었고, 안신능(2006)의 연구에서는 .82,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은 Fraizer 등(2004)이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중재효과 검증 방식을 따랐다. 본 연구의 예언변인과 중재변인은 일반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이므로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변인 역시 이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게 된다. 이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자존감 점수와 승인 욕구 점수를 중심화(centering)하였다. 다음으로 중심화된 점수들을 곱하여 예언변인(자존감)과 중재변인(승인 욕구)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인을 만들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첫 단계의 회귀식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 중심화된 자존감과 승인 욕구 점수를 투입하였다. 끝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인(자존감 X 승인 욕구)을 추가하여 변화된 설명량을 토대로 승인 욕구의 중재효과가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자존감과 승인 욕구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변인들 간의 상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상관분석에서 1종 오류(영가설이 참인데 잘못 기각할 오류)의 증가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05 보다 좀 더 보수적인 유의도 수준 $p < .01$ 을 기준으로 유의미성을 검증하였으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자존감은 승인 욕구와 약한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 및 우울과는 각각 중간 정도와 강한 정도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여, 자존감이 낮을수록 승인 욕구, 우울, 불안이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인 욕구는 우울 및 불안과 각각 약한 정도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약한 부적 상관을 보여,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성별(gender)이 심리적 적응지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의 1단계에 성별을 투입하고 난 후, 2단계에서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존감과 승인 욕구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단계에서 성별은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중 어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우울에 대한 자존감과 승인 욕구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자존감 $\beta = -.54, p < .001$; 승인 욕구 $\beta = .23, p < .01$), 불안에 대해서도 자존감과 승인 욕구의 효과는 유의미하였다(자존감 $\beta = -.41, p < .001$; 승인 욕구 $\beta = .28, p < .001$).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모두 높아지며, 또한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모두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자존감의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beta = .54, p < .001$) 승인 욕구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14, p > .05$).

표 1.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

	자존감	승인 욕구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자존감	-				
승인 욕구	-.32	-			
우울	-.61	.39	-		
불안	-.49	.40	.66	-	
삶의 만족도	.58	-.30	-.59	-.38	-

주: 모든 상관계수는 $p < .01$ 에서 유의미함으로 *표시를 생략함.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자존감 = 30.2(4.94), 승인 욕구 = 19.32(4.78), 우울 = 1.99(.85), 불안 = 1.77(.70), 삶의 만족도 = 21.65(5.81)

중재 효과 검증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존감의 효과에 승인 욕구가 중재 역할을 하는지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 살펴보았으며,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우울에 대해서는 승인 욕구가 유의미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elta F_{1,142} = 6.49, \Delta R^2 = .026, p < .05$, 2.6%의 추가 변량 설명), 삶의 만족도 역시 중재 효

표 2.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단계	예인 변인	β	R^2	ΔR^2	sig.	
우울	1	성별	.03	.001			
	2	성별	-.03	.415	.026	$p < .05$	
		자존감	-.54***				
		승인 욕구	.23**				
	3	성별	-.04	.441			
		자존감	-.53***				
		승인 욕구	.22**				
		자존감 X 승인 욕구	-.16*				
	불안	1	성별	.03	.001		
		2	성별	-.03	.313	.005	$p > .05$
			자존감	-.41***			
			승인 욕구	.28**			
3		성별	-.03	.318			
		자존감	-.40***				
		승인 욕구	.28**				
		자존감 X 승인 욕구	-.07				
삶의 만족도		1	성별	.01	.000		
		2	성별	.06	.351	.022	$p < .05$
			자존감	.54***			
			승인 욕구	-.14			
	3	성별	.07	.374			
		자존감	.53***				
		승인 욕구	-.13				
		자존감 X 승인 욕구	.15*				

* $p < .05$, ** $p < .01$, *** $p < .001$.

과가 나타났다($\Delta F_{1,142} = 5.05, \Delta R^2 = .022, p < .05$, 2.2%의 추가 변량 설명). 그러나 불안에 대해서는 승인 욕구의 중재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Delta F_{1,142} = 1.13, \Delta R^2 = .005, p > .05$).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중재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자존감과 승인 욕구 각각의 평균과 $\pm 1SD$ 에 해당하는 점수를 중심으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예측되는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들을 기준으로 중재효과의 양상을 그림 1, 그림 2로 나타내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우울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으며(자존감 $M-1SD$ 에서 우울: 승인 욕구 ‘상’ 집단 = 2.82, 승인 욕구 ‘중’ 집단 = 2.40, 승인 욕구 ‘하’ 집단 = 1.98)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승인 욕구에 의한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자존감 $M+1SD$ 에서 우울: 승인 욕구 ‘상’ 집단 = 1.46, 승인 욕구 ‘중’ 집단 = 1.50, 승인 욕구 ‘하’ 집단 = 1.55). 또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자존감 $M-1SD$ 에서 삶의 만족도: 승인 욕구 ‘상’ 집단 = 17.31, 승인 욕구 ‘중’ 집단 = 18.81, 승인 욕구 ‘하’ 집단 = 20.32) 우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승인 욕구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자존감 $M+1SD$ 에서 삶의 만족도: 승인 욕구 ‘상’ 집단 = 25.08, 승인 욕구 ‘중’ 집단 = 24.98, 승인 욕구 ‘하’ 집단 = 24.88)을 알 수 있었다. 즉, 분석 결과 가설 1(자존감이 낮고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과 가설 3(자존감이 낮고 승인 욕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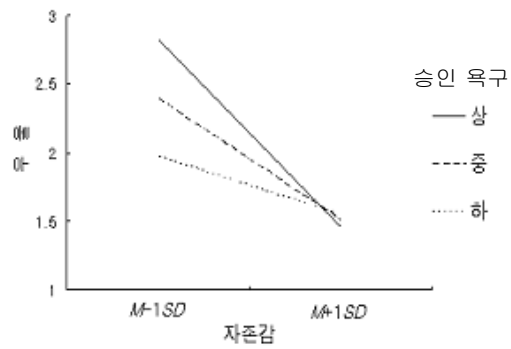


그림 1. 우울에 대한 자존감과 승인 욕구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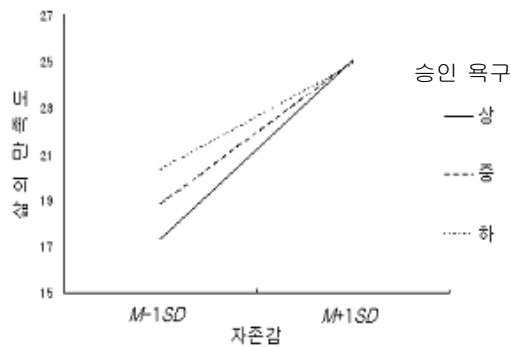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존감과 승인 욕구의 상호작용효과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더 낮을 것이다)은 지지되었으며 가설 2(자존감이 낮고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불안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자존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승인 욕구의 유의미한 중재효과는 자존감 수준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존감이 낮을 때 승인 욕구가 높을수록 더 우울하고 삶에 대해 덜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Festinger, 1954) 이러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조그마한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자신이 거절당한다고 지각하기 쉽고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다(Rosenberg, 1965)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적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실에서 타인의 승인은 대부분 특정한 조건에 맞추어졌을 때에만 주어지며 그로 인해 개인은 타인이 부여한 가치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서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에서 멀어진다. Rogers(1951)의 제안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Rogers는 외부의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자각하는 개인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지 못한 개인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가치의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감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울을 겪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자존감과 외부의 피드백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삶에 대한 불만족감이나 우울이라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존감과 승인 욕구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승인 욕구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승인 욕구가 높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낮은 개인이

높은 승인 욕구를 가지게 되면 삶에 대해 덜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속변인에 대한 주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다는 사실은 변인들 간의 복잡한 관련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존감과 승인 욕구,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세 가설들 중 불안에 대해서는 승인 욕구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우울과 불안의 상이한 특성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Clark과 Watson(1991)은 우울과 불안에 대한 2요인 정서 모형(Tellegen, 1985)을 발전시켜 3부 모형(tripartite model)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이 모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요인 정서 모형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부정 정서와 정적 정서의 2요인으로 설명하는데, 부정 정서는 우울 및 불안 양쪽 모두와 상관이 있는데 반해 정적 정서는 우울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점에서 정적 정서는 우울에 대한 특정요인으로 간주된다(Mineka, Watson, & Clark, 1998). 정적 정서라는 요인에 더하여 Clark과 Watson(1991)은 생리적 과민성이 불안의 특정 요인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우울과 불안을 다음의 세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① 불특정 유형; 우울/불안과 관련된 불면, 주의집중 곤란 등의 증상들을 포함한 일반적 고통이나 부정 정서, ② 불안 유형; 신체적 긴장과 과민상태, ③ 우울 유형; 무쾌감증, 정적 정서의 부재.

이 3부 모형에 근거하여 불안과 우울을 비교할 때 우울은 정적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우울에 있어서 자존감과 승인 욕구가 상호작용효과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낮은 자존감과 높은 승인 욕구가 긍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낮은 삶의 만족도 역시 정적 정서의 감소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우울에서와 유사한 기제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불안은 생리적 과민상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가정 되는데 (Clark & Watson, 1991), 이러한 생리적 각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행동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우울과 구별되는 이러한 불안만의 특징이 본 연구에서 승인 욕구의 중재효과가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자존감이 낮은 개인이 승인 욕구가 높을 경우, 즉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맞춰주는 행동(Crowne & Marlowe, 1964)에 집중할 때 일시적으로는 생리적 각성수준을 낮추는 일종의 대처행동으로 작용하게 되어 높은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건적 관심을 갈망하는 이러한 대처가 궁극적으로 성공적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낮은 자존감이 유발하는 불안을 증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안에 대해서는 승인 욕구가 아닌 또 다른 중재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연구에서 사용된 자존감이 특질(trait) 자존감에 해당하며(Rosenberg, 1965) 최근 자존감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state) 자존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존감과 승인 욕구의 상호작용효과가 상태 자존감에서도 발견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과 관련될 수 있는 반응 편파(response bia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제한점이 있으며,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교육학과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 일반 혹은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통계 분석의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중요한 제한점이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투입된 종속변인들(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간에 상당한 정도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도 수준 $p < .05$ 를 사용할 경우, 1종 오류(결과의 유의미성이 우연에 의한 가능성)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Keppel(1991)이 주장했듯이, 연구의 가설이 이론적 근거에 의해 미리 설정될 경우(예, a priori analysis)에는 사후에 여러 개의 종속변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a post-hoc analysis)와는 달리 “확인적 통계분석(confirmatory statistical analysis)” (p. 183)이기 때문에, 미리 설정된 유의도 수준($p < .05$)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단 제한적이고 잠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자존감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승인 욕구가 높은 경우가 많지만 자존감이 낮으면서 승인 욕구도 낮은 경우는 적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들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충분한 통계적 검증력(power)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 변인 중 하나인 승인 욕구는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개념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MCSD)의 저자인 Crowne(1979)가 제시한 대로 승인 욕구(need for approval)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지만 다른 인구학적 변인(가계의 경제수준, 학년 등)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아울러 승인 욕구가 아닌 다른 중재변인들(예,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 제한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자존감과 심리적 적응의 직접적인 관계에만 관심을 둔 것에 반하여 제 3의 변인인 승인 욕구가 이 관계에서 중재변인으로 작용함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자존감이 낮은 대학생들(특히 교육학과 대학생)이 우울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개인차 변인 중의 하나가 그들이 자신의 가치감을 평가할 때 얼마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가의 정도(승인 욕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도, 상담할 때 이들의 낮은 자존감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려는 시도보다는 이들이 얼마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그들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통계연보 (2007). 교육과정평가원.
- 권성호, 이정섭, 류진혜, 김태성 (1997).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학생활연구*, 15, 91-119.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 - 90 - Reversion). 중앙적성연구소.
- 김태운 (2006). 참선수련 동아리 참가 대학생의 자기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타치*, 17(6), 913-926.
- 안신능 (2006). 자기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박현순 (2000). 인간관계와 적응: 삶을 위한 심리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용승 (2000). 강박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Grayston, A. D., De Luca, R. V., & Boyes, D. A. (1992). Self-esteem, anxiety, and loneliness in preadolescent girl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abus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2(4), 277-286.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2, 745-746.
- Beck, A. T., Brown, G. K., Steer, R. A., Kuyken, W., & Grisham, J. (2001).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eck

- Self-Esteem Scal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115-124.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Robi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115-160). New York: Academic Press.
- Bucur, D. R., & Lee, D-G. (August, 2006). Locus of evaluation measureme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LA.
- Byrne, B. (2000). Relationships between anxiety, fear,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ies in adolescence. *Adolescence*, 35, 201-215.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lark, L. A., & Watson, D. (1991).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evidence and taxonomic implic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03-11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Greenier, K. D., Kernis, M. H. & Waschull, S. B. (1995). Not all high (or low) self-esteem people are the same. In Kernis, M. H.(Eds),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New York: Plenum Press.
- Crocker, J., Sommers, S. R., & Luhtanen, R. K. (2002). Hopes dashed and dreams fulfilled: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admissions to graduate schoo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275-1286.
- Crocker, J., Karpinski, A., Quinn, D. M., & Chase, S. K. (2003). When grades determine self-worth: Consequences of contingent self-worth for male and female engineering and psychology Maj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507-516.
- Crowne, D. P. (1979). *The experimental study of personality*. Hillsdale, NJ: Erlbaum.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354.
- Deci, E. L., & Ryan, R. M. (1995). Human autonomy: The basis for true self-esteem. In Kernis, M. H.(Ed.s),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31-49). New York: Plenum Press.
- DeNeve, K.,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erogatis, L. R. (1977).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I*. Baltimore, MD: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3), 595-60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obson, C., Goudy, W. J., Keith, P. M., & Powers, E. (1979). Further analysis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sychological Reports*, 44, 639-641.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9-335.
- Ellis, A., & Lange, A. (1994). *How to keep people from pushing your buttons*. New York: Kensington Publishing Corp.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1, 117-140.
- Fleming, J. S., & Courtney, B. E. (1984). The dimensionality of self-esteem II: Hierarchical facet model for revised measurement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04-421.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Fung, L. C. L., Lui, M. H., & Chau, J. P. (2006).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following a strok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5, 505-506.
-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dson, D. B., Elek, S. M., & Campbell-Grossman, C. (2000). Depression, self-esteem,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among adolescent mothers participating in the new parents project. *Adolescence*, 35, 445-453.
- Johnson, F. (1973). Alienation: Concept, term, and word. In Johnson, F.(Eds), *Alienation: Concept, term and meanings*(27-51). New York: Seminar Press.
- Keppel, G. (1991). *Design and analysis: A researcher's handboo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eary, M. R. (1983).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Social, personality and clinical perspectives*. Beverly Hills, CA: Sage.
- Leary, M. R., & Downs, D. L.(1995). Interpersonal functions of the self-esteem motive: The self-esteem system as a sociometer. In Kernis, M. H.(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123-144). New York; Plenum Press.
- Lee, D-G., Lee, S., & Park, H-J. (2008).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 65-82.]
- Lopez, F. G. (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self-other boundary regulation, and splitting tendencies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40-446
- Mertler, C. A., & Vannatta, R. A. (2005).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3rd ed.), Glendale, CA: Pycszak Publishing.

- Mineka, S., Watson, D., & Clark, L. A. (1998). Comorbidity of anxiety and unipolar mood disorders. *Annual Reviews Psychology*, 49, 377-412.
- Napper, O. G. (2006). Meditation and relaxation awareness. *Teaching an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7(1), 18-19.
- Patten, M. D. (1983).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xiety, and achievement in young learning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6, 43-45.
- Paulhus, D. L. (1991).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 In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17-59). New York: Academic Press.
- Peplau, L. A., & Perlman, D. (1982). *Loneliness: A current source book of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Interscience).
- Raskin, N. J. (1952). An objective study of the locus-of-evaluation factor in psychotherapy. In Wolff, W., & Precker, J. A.(Eds.), *Success in psychotherapy*(143-162). New York: Grune & Stratton.
- Raskin, N. J. (2004). *Contributions to client-centered therapy and the person-centered approach*. Great Britain: PCC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ich, E. A., Sedikides, C., & Gregg, A. P. (in press). Self-esteem moderates preferences for accepting versus rejecting interaction partn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Salsali, M., & Silverstone, P. H. (2003). Low self-esteem and psychiatric patients: Part II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mographic factors and psychosocial stressors in psychiatric patients. *Annals of General Hospital Psychiatry*, 2, 3.
- Schunk, D. H. (1984). Goal and self-evaluative influences during children's cognitive skill learn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2), 359-382.
- Shaver, P. R., & Brennan, K. A. (1990). Measures of depression and loneliness. In J. P. Robin, P. R. Shaver & L. S. Wrightsman(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195-289). New York: Academic Press.
- Taylor, D. N., & Del, P. (1992). Self-esteem, anxiety, and drug use. *Psychological Reports*, 71, .896-898.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Tuma, A. H. & Maser, J. D.(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681-706). Hillsdale, NJ: Erlbaum.

원고접수일 : 2008. 09. 29.

게재결정일 : 2008. 11. 20.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Approval

Minjeong Kim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based on Carl Rogers' conceptualization about conditioned self-worth,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approv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dices (depression, anxiety, & life satisfaction). A total of 147 (97 women)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and completed the research packet. Thre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zed moderating effects. The study results provided support for the moderating effect for two dependent variables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but not for anxiety. Participants low on self-esteem experienced more depression and less life satisfaction when they exhibited a high level of need for approval. The non-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for anxiety may reflect a potential,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Key words : *Self-esteem, Need for Approval, Depression, Anxiety, Life Satisfaction*